

어린이의 독서력 기르기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정 원 식

독서는 왜 중요한가?

독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독서에 의해서 지능을 발달시키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범과 교양을 몸에 갖추게 된다. 그러기에 어린시절 가정에서 독서력을 길러주는 일은 모든 지식과 기능의 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앞서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독서가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사이버 시대가 되었으니 지긋지긋한 책읽기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인 것 같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인터넷의 시대가 되었으니 낡은 독서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감각적인 자극을 받아야 만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 문자와 문장이라는 시각적 자극에 의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그것은 책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나 컴퓨터 사이트에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이버시대라고 해서 문자와 같은 기호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접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정한 어휘와 개념의 습득 없이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지 못하다. 이점은 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독서를 통하여 모든 정보처리 과정이나 의사전달에 있어서 필요한 어휘와 개념을 기초적으로 습득하여야만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독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독서에 의하여 논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문장이나 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일정한 틀의 논리를 사용한다. 이때 표현된 문장이나 말의 뒤에 숨어있는 논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소설책을 읽거나 학술적인 논술을 대하거나 E메일을 받아야 할 때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의 이해는 반복되는 독서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독서하는 능력과 습관은 아무 때에나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또 독서력이 길러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습관이 그러하듯이 독서하는 습관 또한 어린시절에 길러진다. 독서하는 일이 몸에 밸 정도로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점에서 어린시절에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의 독서력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독서 호기심을 개발하라

얼마 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취임한 한국인 2세 고흥주 박사에 관한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 널리 보도된 바 있다. 그는 한국인 2세로서는 미국정부의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미국에일대학의 교수였던 고허림 박사의 네 자녀 중 한사람으로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 비단 고 박사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고 교육하였기 때문에 미국교포사회에서는 고허림 교수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몇몇 교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나고 물어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자녀들의 어머니인 전해성 박사는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뭘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통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이었다.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구해다가 아이들 방에 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바닥에 널려있는 책을 보고 무슨 책인가 해서 들춰보니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사진도 들어있는 책을 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니까 책을 읽게 됨으로써 독서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기보다도 책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일이 극히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독서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라

어린이가 자라는 과정을 관심 깊게 관찰한 어머니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쉽게 발견했을 것이다.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의 광경을 생각해보자. 말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되풀이해서 발음을 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배우지 못한다고 꾸짖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말을 배우려고 몸부림친다.

어린이들이 왕성한 배움의 의욕을 보이는 것은 호기심이 발동하고 또 배우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만일 말을 배우는 일이 즐겁지 않고 지겨운 일이 된다면 그토록 의욕적으로 말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낱말하나 표현방식 한가지를 배우면서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가 책을 읽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 호기심도 있어야 하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지를 못하고 독서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게 되면 독서습관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이 독서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우선 두가지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도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앞서 소개한 고흥주 박사의 어머니가 방바닥에 책을 뿌려주었다는 것은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어린이 책상 위에 재미있는 그림책을 놓아두거나 대형서점을 구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의 독서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독서는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읽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어린이의 능력과 흥미에 부합되는 독서를 단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언어환경을 향상하라

근래에 와서 교육심리학자들은 가정의 언어환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가정의 언어환경은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생을 두고 사용하게 될 언어의 기본을 만들어주며 특히 독서력을 길러주는 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가정의 수준 높은 언어환경은 독서력을 향상하는 일과 상승작용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어환경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게 된 어린이는 그만큼 독서력이 빨리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의 언어환경 수준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어휘 수와 개념이 어느 정도이나 하는 것이다. 하루에 사용되는 어휘 수가 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또는 자녀들 간의 대화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어휘 수와 개념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어휘와 개념이 반복해서 사용될 뿐이다. “밥 먹어라” “그만 놀아라” “싸우지 마라” 등의 말이 반복해서 사용될 뿐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풍부한 어휘 수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찾아 볼 수도 없다.

둘째의 조건은 표현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준이 낮은 언어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휘를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언어환경에서는 표현방식이 문법에 합당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모델이 되는 부모가 어느 정도 독서를 해서 가정의 언어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신문을 보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전해성 박사는 자녀들의 독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그 자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환경과 독서력의 발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서자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언어환경을 향상하고 독서의 본을 보이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언어환경은 독서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강조하는 만큼 사후지도에도 역점을 두라

독서에 있어서 사후지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비교적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독서지도에 있어서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책을 건성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서 느끼거나 배우게 된 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사후지도를 위해서이다. 이 점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후지도가 뒤따르게 되면 어린이들은 책을 읽은 다음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는 성취감을 맛봄으로써 독서하는 일이 결코 짐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후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독후감을 쓴다는 일이 새로운 짐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흔히 할 수 있는

사후지도는 일정한 독서를 마친 다음 그 책에서 느끼거나 배우게 되었다는 점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지만 어머니가 시간을 내야하기 때문에 역시 잘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서의 사후지도와 점검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독후감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얻어 모처럼 모자가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어머니의 처지에서는 자녀들의 지적인 성숙상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자녀들의 처지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정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여간 독서를 강조하는 만큼 사후지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